

 진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홈페이지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3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골별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사 안 내	주 일	토요일 주일 : 16:00 (초등부 대성전) 19:00	
			06:30 (새 벽) 10:30 (교 중)	
			10:3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 년) 21:00 (찬양미사)	
		평일	새벽 6:30 저녁 19:00	(목) 오전 10시
	예비자교리	일요일 낮 12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 세례	사무실 문의			

2020년 본당 사목 목표 : 1. (세례 받고 파견된 이들) “선교사가 됩시다.” 2.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 알 림

- 대림절 신앙실천표(대림저금통), 판공성사표 배부
 - 구·반장님은 대림실천표, 판공성사표를 구역·반에 나누어 주시고, 구역 외 신자는 사무실에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2020년 대림·성탄 교리문제집(골든벨)을 구역에서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구입바랍니다.
- 다음 주일(11/29)은 돈보스코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 유아 세례, 태종의 아기 축복, 봉성체 신청 받습니다.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개별 예식)
- 고해소 사용
 - 고해소에 환기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 손소독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능한 짧게 본인의 고해만 합니다.
-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사용 안내
 - 성당 입구에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하였습니다.
 - 바코드를 무인 단말기에 접촉(터치)하여 본인 스스로 출입을 기록합니다.
 - 바코드가 없는 본당 신자는 사무실에서 발급 받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교구의 지침
 - 미사 외 모든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합니다.
 -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지켜 주십시오.
- 미사 참례시 주의사항
 - 성당 정문을 이용합니다.
 - 마스크를 코와 턱이 덮이도록 똑바로 착용합니다.
 -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받은 후, 키오스크에 바코드로 출입을 기록합니다.
 - 바코드가 없는 타본당 신자는 수기로 기록합니다.
 - 손 소독을 하고 입장합니다.
 - “X”라고 써있는 곳은 앉지 않습니다.
 - 개인이 사용한 주보는 가져갑니다.

◎ 12월 세례식 일정

참고, 세례연습	12월 6일(주일) 교중미사 후
세례식	12월 12일(토) 14:00
첫 영성체	12월 13일(주일) 교중미사 중

◎ 청년 분과

- 구상(구로3)청년 비대면 대림피정
 - 일 시 : 대림시기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 9시45분 (11/28, 12/5, 12/12, 12/19)
 - 만남곳 : Zoom(링크 추후 공지예정)
 - 신 청 : <http://g3cn.page.link/2021-advent>
 - 문 의 : 정상범 야고보(010-7275-4253)

* 성탄절 맞이 본당 대청소 *

일 시 : 12/ 5(토) 오전 09:30 ~ 12:00
준비물 : 고무장갑, 걸레, 수세미 등 청소에 필요한 도구
형제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수험생을 위한 기도 모임 *

- 대상자 : 수험생 자녀가 있는 보호자
- 시 간 : 평일 19:40~20:40, 주말 17시~18시
- 장 소 : 소성전

◎ 다음주일 (11/29)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 소	2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11월11일 ~ 11월17일)

교 무 금		6,888,000 원
주일헌금		4,262,500 원
감사헌금	이○○10만원 김수자10만원 박정순10만원 익 명 5만원 박경희 5만원 정민수10만원 천은주50만원 이인옥50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 설	복 사	독 서
11/22	손진희	심재순 임공섭 도현만 최상림	장익근 김선미
11/29	이인옥	오성환 서윤석 신종구 김진수	최웅조 박혜선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일	06:30	10시 30분	12시	저녁7시
11/22	김인기	이성일	김영배 박승환	최승일	이운영
11/29	박승환	이운영	박용환 박형순	오광운	장인홍

◎ 주보 7면

- 지역별 주일 미사 참례 시간
-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학생 모집
-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행동하는 교리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 지역별 주일 미사 참례 시간

구 분	새벽미사 6:30	교중미사 10:30	주일 낮 12:00	주일저녁 19:00
11월22일	3지역	4지역	1지역	2지역
11월29일	2지역	3지역	4지역	1지역
12월 6일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12월13일	4지역	1지역	2지역	3지역

- 구역 외 신자분들은 12시, 저녁 7시 미사에 참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알림 전까지 주일 밤 9시 미사는 없습니다.
- 서울 대교구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학생 모집 *

- 전액 무료, 저녁 식사제공
- 초등학교, 중학교 기초교육 봉사자 모집
(국어·영어·수학)

• 후원금계좌 : 신한 131-018-937372

(사) 국제청소년지원단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행동하는 교리

세상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

14. 신약 성경에서 사랑의 새 계명은 무엇인가요?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루카 6,31)라는 황금률은 여러 문화에서 선한 삶의 규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사랑의 계명을 이보다 더 강하게 요구합니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레위 19,18)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당신 자신과 당신의 희생적인 삶에 결합시킴으로써, 이 계명을 드높이시고 구체화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 이러한 사랑은 공동체성과 인격성을 실현합니다. 우리 각자는 하느님께 사랑을 받는 독특하고 유일한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모든 인간이 기여할 수 있는 ‘사랑의 문명’ (바오로 6세 복자 교황과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교황)의 시작입니다.

15. 인간은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나요?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고 또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과 깊이 일치합니다. 여기에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그 모범으로 보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보여 주셨던 것처럼, 하느님은 그 자체로 사랑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영원한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친교에 인간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사랑을 멀리하지 않고 마음을 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넘어서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온전한 자유 의지로 십자가에서 희생되었고, 당신의 인간적 생명을 친히 봉헌하심으로써 사랑의 위대한 업적을 완수하셨습니다.

16.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덕으로서 훈련을 통해 키울 수 있습니다. 더 용감하고, 더 대담하고, 더 의롭고,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순수한 요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호의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인격체로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느끼며,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사랑하는 법을 익힌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도움으로 아주 고통스럽고 냉대를 받는 곳에서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을 돌볼 때가 그런 경우입니다. 또한 우리의 반대자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대해야 할 경우 곧 우리가 복수와 증오와 폭력을 포기할 때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